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5 | 불신 시대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작품 「불신 시대」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이 작품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특정 인물(진영)의 시각에서 내면을 서술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해. 그리고 작품에 드러나는 진영의 태도 및 심리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작품 맥락을 파악하며 진영의 태도 및 심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그리고 <보기>로 제시된 다른 작품과 엮어서 인물의 태도나 주제 의식을 비교하는 문제가 심화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 유의하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 작품을 공부할 때는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과 주인공 ‘진영’이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진영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파악해두어야 하겠네요.

맞아.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  
이 작품은 6·25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를 배경으로,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고 있어. 진영은 병원이 돈을 위해 주사약의 분량을 속이고, 엉터리 처방을 하고, 빈 약병을 판다고 의심하고, 종교인의 세속적인 모습 등을 보며 사회에 환멸을 느껴. 그리고 마지막에 진영이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불태우는 것은 과거의 아픔 및 타락한 시대와의 연결 고리를 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란단다.



선생님, 그런데 진영이 어머니가 절에 가져갈 과일을 챙겨주다가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돼요. 진영은 왜 갑자기 부끄러워한 건가요?

그건 진영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모순을 자각했기 때문이야. 진영은 세상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속물적이라고 비판해 왔잖아? 그런데 정작 자신도 어머니가 가져갈 과일을 보며 “이걸 종이 먹다니 아깝다”라고 계산적이고 인색한 생각을 한 거지. 순간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세상 사람들의 속물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 즉 ‘파렴치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환멸과 부끄러움을 느낀 거란다. 이 부분은 중요한 심리 묘사니까 잘 기억해 두렴.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5 | 불신 시대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진영이 한여름 내내 앓았던 이유)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트고 하기가 일쑤였다. 앓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육신거렸다.

[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짹짹하게 내리찍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비유적 표현. 이 표현과 관련해 '진영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이 부분은 진영이 겪는 심리적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육신의 해체와 더불어 정신마저 붕괴되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밤마다 귤가에 울러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라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비유적 표현) 진영의 주변을 꼭 싸는 것이었다. ]([ ]: 진영의 과거의 기억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며 진영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킴. → 진영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나타냄.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과 관련하여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그만,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다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이 사건의 기능과 관련하여 '진영이 병원을 불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 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이 병원을 불신하게 된 계기)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 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 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물건이나 세력, 사상 따위가) 마구 쏟아져 돌아다님.)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 불었다.**(속물적인 인간상 ①)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태연히 가짜를 진짜라고 속이는 사람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진영이 의사와 상인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 '의사를 상인과 동일한 속물적인 존재로 간주하며 불신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 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페스트**(페스트균이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전염병이나 나쁜 현상이 널리 퍼짐.)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환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

금 십만 환은 다 받은 셈인데(이전에 아주머니가 진영에게 십만 환을 빌렸었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진영과 한 약속을 지켰음을 알 수 있음.) 조금씩 조금씩 보내 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아주머니는 진영이 문수의 위패를 절에 맡긴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봄.)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 들어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종이 먹고 살 값수.”**(속물적인 인간상 ㉔)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종이 먹다니, 아깝다. 밍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이 부분에서 진영이 부끄러움을 느낀 이유에 대해 ‘제물(祭物)을 속물적 가치로 환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열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게딱지만 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 짜짜하게 괴인 샘터에서 물을 길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비유적 표현),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진영이 빈민굴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한 뒤 깨달은 것. 이 부분에 드러난 진영의 인식에 대해 ‘타인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한 후 자신의 슬픔이 사치스럽다는 자각을 한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을 깨달았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市街)**(도시의 큰 길거리. 인가(사람이 사는 집이나 상가가 많이 늘어난 거리))는 너절했다. **[ 구릉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뿔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비유적 표현. 너절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시가의 모습을 통해 전쟁 후 혼란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단서를 제시함. 이 부분의 공간적 의미와 관련하여 ‘도시의 집들이 진뿔물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모습은 전후 도시의 무질서와 혼란을 보여 주는군.’과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 ] :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함.)

≥(< >: 진영은 천막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후 전쟁 이후의 힘겨운 사람들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게 됨.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 궁핍을 겪은 이들이 한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전후 사회의 모습이 나타남.)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 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 진영은 알팍한 턱을 괴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신앙으로 의지하려 했던 갈월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만다. 그때 명절이니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그동안 버르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고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소홀히 대접함.) 절에 찾아가 외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 댄다. 위패는 이내 살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 버렸다. ]( [ ]: 절에서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와 태움. → 시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락한 시대와의 연결 고리를 끊음.)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보기에 인정이나 싹싹한 맛이 없고 쌀쌀맞은 데가 있음.) 맑다. 잡목 가지에 얽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다.”**(타락한 시대에 맞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이 부분에 드러난 주제 의식에 대해 ‘불신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생명력을 지키려는 저항이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 박경리, 「**불신 시대**」(‘불신 시대’는 6·25 전쟁 이후의 부패한 사회 현실, 혼란한 사회 상황이 만들어 낸, 계산적이고 속물적인 사람들과 부조리한 사회를 의미함.)

\* 위패: 단, 묘, 원, 절 따위에 모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 핵심 정리

-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 성격: 사회 고발적
- 주제: 전쟁 이후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고발
- 특징
  - 주인공 진영 이외의 인물의 심리는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음.
  -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고발하는 저항 의식이 나타남.

### 전체 줄거리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영은 하나뿐인 아들 문수마저 잃는다. 문수의 죽음은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약도 챙겨 주지 않은 의사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아들 문수의 죽음으로 진영은 사회를 불신하게 된다. 상실감을 잊기 위해 진영은 종교에 매달리고자 하나, 시주받은 쌀을 착복하는 종과 도적맞을까 봐 신발을 싸 들고 예배 보는 신도들 등 진영의 눈에 비친 타락한 종교계는 그녀에게 분노를 안겨 줄 뿐이다. 또한 폐결핵인 진영이 찾아가간 병원은 한결같이 엉터리며,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난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진영의 돈을 떼어먹은 갈월동 아주머니는 사기로 인해 돈을 잃게 된 자신의 고민을 진영에게 털어놓는다. 진영은 이러한 시대의 문제에 지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분노를 터뜨린다. 사회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것이 살아남은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 진영은 절에 맡겼던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불태우고 삶의 의지를 다진다.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현대소설 05 | 불신 시대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토고 하기가 일쑤였다. 앓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쟁쟁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짙게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도 멀다고 그만,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다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숙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 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 병

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 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 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페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환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환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조금씩 보내 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밍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열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게딱지만 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짜하게 괴인 샘터에서 물을 길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市街)는 너절했다. 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땀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 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 진영은 알팍한 턱을 괴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신앙으로 의지하려 했던 갈월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만다. 그때 명절이니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그동안 버르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고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 절에 찾아가 외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 댄다. 위패는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 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목 가지에 얽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①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 박경리, 「불신 시대」

\* 위패: 단, 묘, 원, 절 따위에 모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1. 윗글의 서술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면서 제시하여 인과관계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을 극대화하여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과 내면을 반대로 표현하여 성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 ㉔에 나타난 진영의 '부끄러움'에 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들의 위패를 모시려고 부도덕한 중들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이 비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 ② 절에 할머니를 대신 보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기 때문이다.
- ③ 추모 의식을 성대하게 해 주지 못한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기 때문이다.
- ④ 사소한 음식 때문에 중들과 다투었던 소심한 자신의 모습이 미워졌기 때문이다.
- ⑤ 제물(祭物)을 속물적 가치로 환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이다.

3. 뒷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영은 지병인 폐결핵 외에도 여러 질병이 겹치며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 ② 진영은 병원들이 이익을 위해 약을 속인다고 의심하여 치료를 중단했다.
- ③ 아주머니는 진영에게 빌린 돈의 원금을 약속대로 모두 상환하였다.
- ④ 진영은 아주머니가 자신의 종교적 행위를 나무랄 때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 ⑤ 진영은 추석날 어머니가 절에 가져갈 과일을 챙겨 주었다.

4. '진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짜 주사약을 파는 상인들과 타협하려 한다.
- ②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그동안 소홀했던 아들의 위패를 찾아오기로 결심한다.
- ③ 타인의 비참한 처지를 목격한 후 자신의 슬픔이 사치스럽다는 자각을 한다.
- ④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태우는 행위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종교에 귀의한다.
- ⑤ 사회적 부조리에 맞서기 위해 아주머니와 힘을 합쳐 병원을 고발하고자 한다.

5. 작품 제목인 「불신 시대」와 관련하여 인물들의 행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영이 병원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것은 의료가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켰기 때문이다.
- ② 아주머니가 진영을 나무라는 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충고라고 볼 수 있다.
- ③ 상인들이 가짜 약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기만이 일상화된 시대상을 보여 준다.
- ④ 진영이 아들의 위패를 태우는 것은 불신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생명력을 지키려는 저항이다.
- ⑤ 도시의 무질서한 모습은 신뢰와 조화가 사라진 불신 시대의 공간적 배경을 상징한다.

고난도

6. 뒷글의 ㉕에 나타난 진영의 태도와 유사한 태도가 나타나는 작품은?

- ①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섬에 따로 외로이 서서 /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 새에는 /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② 蘭난干간의 비겨 서서 님 가신 디 바라보니 / 草露(초로)는 맺쳐 잇고 暮모雲운이 디나갈 제, / 竹林(죽림) 푸른 고딕 새 소리 더욱 설다.  
- 허난설헌, 「규원가」
- ③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④ 房(방) 안에 헛는 燭(촉)불 놀과 離別(이별)헛엇 관디 / 것흐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로노고 / 우리도 더 燭(촉)를 갖흐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 이개, 「방 안에 헛난 촉불」
- 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 그는 몰랐다.  
- 신경림, 「갈대」

**7. 윗글의 문체상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심표의 사용을 통해 호흡을 조절하며 인물의 불안한 내면을 드러낸다.
- ③ 감각적인 형용사와 비유를 활용하여 병적인 상태와 사회의 부패상을 묘사한다.
- ④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인물 간의 친밀감과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짧고 간결한 문장을 통해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8~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①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토고 하기가 일쑤였다. 앓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②쟁쟁하게 내리찍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A]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짝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

일이 멀다고 그만,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다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③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숙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 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 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발 붙였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 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페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④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환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환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조금씩 보내 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⑤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있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종이 먹고 살겠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종이 먹다니, 아깝다. 밍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열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게딱지만 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짜하게 괴인 샘터에서 물을 길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市街)는 너절했다. [B]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땀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 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 진영은 알뜰한 턱을 괴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신앙으로 의지하려 했던 갈월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만다. 그때 명절이니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그동안 버르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고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 절에 찾아가 외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

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 댄다. 위패는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 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C] “내게는 다만 쓰러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목 가지에 얽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다.”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무를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 박경리, 「불신 시대」

\* 위패: 단, 묘, 원, 절 따위에 모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 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심리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④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대화와 묘사를 병행하여 인물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9. 윗글의 '진영'이 겪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면서 점차 정신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 ② 과거의 행복했던 기억에 의존하여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려 한다.
- ③ 육신의 해체와 더불어 정신마저 붕괴되는 극한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
- ④ 타인과의 갈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신의 존재를 믿기로 한다.
- ⑤ 의사의 권위를 신뢰하며 병원 치료를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1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진영에게 삶의 환희를, ㉡은 진영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 ② ㉠은 진영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은 타인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이다.
- ③ ㉠은 자연의 생명력을, ㉡은 도시의 활기를 상징한다.
- ④ ㉠과 ㉡은 모두 진영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⑤ ㉠은 진영이 추구하는 대상이고, ㉡은 진영이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1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는 청각적 심상을, [B]는 시각적 심상을 주로 활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A]는 인물의 외적 갈등을, [B]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A]는 현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B]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드러낸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B]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 ⑤ [A]와 [B] 모두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공간을 그리고 있다.

1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진영이 겪는 경제적 궁핍이 식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 진영이 병원을 불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 ③ ㉤: 진영과 아주머니 사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어 화해했음을 암시한다.
- ④ ㉥: 진영이 종교에 귀의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⑤ ㉥: 진영이 현실의 고통을 피해 자연 속으로 도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13. 윗글의 '병원'과 '절'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병원과 절 모두 진영에게 육체적, 정신적 위안을 주는 안식처이다.
- ② 병원과 절 모두 진영이 신뢰를 잃고 환멸을 느끼는 불신의 공간이다.
- ③ 병원은 진영이 희망을 갖는 공간이고, 절은 절망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병원은 진영이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이고, 절은 진영이 고립되는 공간이다.
- ⑤ 병원은 과학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공간이고, 절은 미신적 요소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고난도** 14. 다음 중 [C]에 나타난 '진영'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 것은?

- ① 벼는 서로 어울어져 기대고 산다 / 햇살 따가워 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 이성부, 「벼」
- ② 껌데기는 가라. / 4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껌데기는 가라.  
- 신동엽, 「껌데기는 가라」
- ③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④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  
쓸려 오다. (중략)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  
에 /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이육사, 「절정」

- 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허공 중에 헤어진 이  
름이여!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나무아카데미 배포포 김지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⑤

윗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면서 대체로 '진영'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숙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 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며 인과관계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 ③ 인물들 간의 외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인물의 외양과 내면을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 2. [정답] ⑤

'문수가 먹을 것을 종이 먹다니 아깝다. 밍살스럽다.'고 한 진영의 중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제물을 속물적 가치로 환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 ① 자신을 비굴하게 느꼈다는 서술은 찾을 수 없다.
- ② 절에 할머니를 대신 보내고 있지 않다.
- ③ 추모 의식을 성대하게 해주지 못한 처지를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매력적인 오답]** 음식으로 인해 증과 다툰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 3. [정답] ④

아주머니는 진영에게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하며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랐다. 진영은 아주머니의 나무람에 대해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 멍멍히 쳐다보며 충동을 억눌렀을 뿐 반박하지 않았다.

- ① 폐결핵이 악화되고 배탈, 눈병, 충치 등이 연속적으로 병발했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② 주사약의 분량을 숙이거나 빈 병을 파는 행위를 목격하며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병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 ③ 아주머니가 마지막 남은 만 환을 가져옴으로써 원금 십만 환은 다 받은 셈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 ⑤ 추석날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고 먹음직한 과일과 과자를 바꾸기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다.

### 4. [정답] ③

빈민굴에서 굶주리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 뒤, 울고 싶어 산에 올라온 자신의 마음이 차라리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 ① 진영은 가짜 약이 범람하는 현실과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하는 의사들에 대해 신뢰감을 잃고 분노하고 있다. 의사들과 타협하려 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아들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절에서 찾아온 것은 경제적 여유와 무관한 진영의 정신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사진과 위패를 태우는 것은 맥락상 타락한 시대와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항거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종교에 귀의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
- ⑤ 진영은 개인적으로 병원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느끼고 고립된 고통을 겪을 뿐, 아주머니와 힘을 합쳐 고발을 도모하지 않는다.

### 5. [정답] ②

윗글에서 아주머니가 위패를 절에 모시는 등 진영의 종교적 행위를 나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독단적인 태도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심 어린 충고로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의사가 상인처럼 이익을 챙기고 약을 속이는 행위는 진영이 사회를 불신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 ③ 타인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현실은 불신 시대의 부정적인 특징을 잘 나타낸다.
- ④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만 진영은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태움으로써 이 세상에 맞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진다.
- ⑤ 조화가 깨진 잡다한 생활이 뒤섞인 도시는 전쟁 이후 도덕과 신뢰가 붕괴되어 혼탁해진 사회의 내면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정답] ①

㉠에서 진영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향거할 수 있는 생명이다.'와 같이 말하며 도덕성과 신뢰가 붕괴된 사회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①의 '갈매나무'는 추운 겨울, 눈을 맞으면서도 '굳고 정한' 모습을 잃지 않고 홀로 서 있는 나무이다. 이는 ㉠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지키는 존재를 상징하므로,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새 소리 더욱 설다'는 입을 잃은 슬픔과 한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③ '공허한 군중의 행렬', '무거운 비애', '어두워',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 등 암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며, 생명력과 향거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과는 상반된다.

④ 촛불에 빔대어 이별의 슬픔으로 속이 타들어 가는 화자의 비통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명력과 향거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과는 거리가 멀다.

⑤ 삶의 본질적인 외로움과 슬픔을 깨닫지 못하는 인물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명력과 향거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는 ㉠과는 거리가 있다.

7. [정답] ④

이 작품에서 "당신네 같으면 종이 먹고 살갓수"와 같은 구절에 사투리가 섞여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속어를 남발하거나 이를 통해 해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① '내려오는 것이다' 등의 서술과 함께 내면 묘사에서 현재형 진술이 혼용되어 생생함을 준다.

② '밤마다 귤가에 울러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 진영의 주변을 꼭 싸는 것이었다.' 등의 문장 중간에 쉼표를 사용하여 호흡을 끊으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③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 '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등의 비유와 감각적 어휘를 통해 병적인 상태와 빈민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⑤ '추석날이었다.', '사진이 말끔히 타 버렸다.' 등 간결한 문장은 상황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8. [정답] ①

진영이 느끼는 생명력을 지렁이에 비유하거나,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꼭 싸는 것이었다'와 같이 인물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서술자는 주인공 진영의 내면 심리와 주관적 판단을 깊이 있게 서술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관찰자로 보기 어렵다.

③ 진영이 산으로 올라가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등 공간 이동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④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대목이 있으나,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며 긴박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시가(市街)를 진딧물에 비유하거나 빈민굴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의 부정적이고 너절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이다.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③

진영은 폐결핵과 각종 합병증으로 인해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환각과 이명 등 정신마저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

① 진영은 폐결핵의 방치로 인해 다른 병이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신경'이 '궤도에서 무너져 나'가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② 밤마다 떠오르는 환각과 아이의 울음소리 등 과거의 기억은 진영에게 행복이 아닌 고통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④ 진영은 자신이 문수의 위패를 절에 모신 것과 관련하여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아주머니의 말에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하는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신의 존재를 믿기로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진영은 의사가 상인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의료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병원 방문을 중단한다.

10. [정답] ②

㉠은 병든 진영 자신의 육체를 '뽕뽕하게 내리찍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에 비유한 표현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나타내고 ㉡은 빈민굴에 사

는 사람들의 영양실조와 곤궁함을 드러내는 타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은 육신이 해체되는 과정 속에서의 무서움을 비유한 것이므로 삶의 환희와는 정반대이다.
- ③ ㉡은 병든 생명을 의미하며 ㉢은 사람들의 빈곤한 상태를 나타내므로 활기나 긍정적 생명력과는 거리가 멀다.
- ④ ㉣과 ㉤ 모두 모두 전후의 비극적 상황을 보여주는 부정적 이미지이므로 진영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은 자신의 처지이지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며 ㉦은 진영이 목격한 현실의 참상으로, 극복 대상이라기보다 자각의 계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①

[A]는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 등 청각적 심상과 색채 이미지를 통해 진영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묘사했고, [B]는 산 위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을 ‘진딧물 모양’, ‘다닥다닥 붙어 있는’ 등의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묘사했다.

- ② [A]는 진영의 내면적 고통을 다루고 있으며, [B]는 외부 세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A]는 고통스러운 환각이므로 긍정적 인식과 거리가 멀고, [B] 역시 너절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 주므로 미래 전망과는 관계가 없다.
- ④ [A]는 묘사가 중심이며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A]와 [B] 모두 고통스럽거나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하므로 자연 친화적 태도나 이상적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12. **정답** ②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세는 것을 보고 가짜 약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빈 병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것이 병원 발길을 끊게 된 ‘직접의 동기’라고 서술되어 있다.

- ① **[매력적인 오답]** 배탈은 병이 악화되어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지, 돈이 없어 찬물만 마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 ③ 돈은 갏았지만 종교적 견해 차이와 내면의 앙금이 남아 있으므로 완전한 화해로 보기 어렵다.

④ 진영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속물적인 생각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 종교에 귀의하지는 않는다.

⑤ 언덕을 내려오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위패와 사진을 태우고 삶의 의지를 다진 후 다시 현실의 삶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13. **정답** ②

진영은 병원에서 가짜 약과 상술에 환멸을 느껴 발길을 끊었고, 절 역시 돈에 따라 신도를 차별하는 속물적인 모습에 실망하여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찾아온다. 따라서 두 공간 모두 진영에게는 불신과 환멸의 대상이다.

- ① 두 곳 모두 위안을 주지 못하고 고통과 분노를 유발한다.
- ③ 병원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병원은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불신으로 단절된 공간이며, 절 역시 진영이 고립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병원의 실상은 비합리적인 가짜가 판치고 있고, 절 또한 종교적 신성함보다는 세속적 욕망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